

## 유혹의 경험과 극복 :

새벽 출정호의 항해로부터 얻은 교훈

## 서론

### \*\* 유혹의 보편성

•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유혹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그 유혹이 자기중심성이든지, 이성애에 대한 욕망이든지,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대한 탐심이든지, 끝없는 욕심이든지, 교만이든지,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든지, 하나님 외의 우상 섬김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다. 우리 모두 어떤 대상으로부터 유혹 받으며 산다. 어떤 한 나라.종교.인종.언어.성.계급.또한 그 어떤 것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거리에 걸으며 매력적인 여자를 보는 남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든 남미에서든 동일한 유혹을 경험한다. 호주 남성 사업가가 아칸소 여성 사업가와 다를 바 없이 같은 욕심의 유혹과 씨름할 것이다. 소말리아에서도 스페인에서도 폭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유혹은 다를 바 없다.

- 조지아 주의 25,000 명의 교인을 이끄는 에디 롱 목사는 강제 성행위에 동참했다.
- 소말리아에서 정부 군인들이 이슬람교도 반란군과 맞서 싸운다.
- 신문을 훑어보거나 cnn.com 방문하기라도 하면 유혹의 참혹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이야기는 석간신문 앞면에 실린 이야기들이었다.

• 매일매일 오염시키는 광고, 정부 또는 종교 지도자들, 오염시키는 생활방식,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전자오락, 문화를 오염시키는 영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욕망과 생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새벽 출정호의 항해』의 인물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들 역시 유혹의 경험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견뎌낸다. 일곱 명의 사라진 왕족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 섬 저 섬으로 항해하는 여정 가운데 각 인물은 궁극적으로 유혹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 **유스터스:** 여행 가운데 외로움과 답답함과 싸우던 그는 동굴 속 혼자 돌아다니며 부의 유혹을 받는다. 즉 욕심의 유혹을 받게 된다.
- **루시:** 언니 수잔의 미모에 대한 질투심과 싸우던 그녀는 주문의 책을 훑어보며 외모의 유혹과 타인들의 인정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즉 질투의 유혹을 받게 된다.
- **에드먼드:** 권위의 자리를 캐스피언과 겨루던 그는 미지의 호수를 탐색하던 중 부와 권력의 유혹을 받는다. 즉 교만의 유혹을 받게 된다.

**질문:** 우리 모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으며 그것에 대해 읽어보았다. 또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이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이며 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 **\*\* 죄성에 관한 한 가지**

### **1. 세상의 보편적인 감각적 경험/과정인 유혹**

• **창세기 3 장 6-7 절**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유혹 과정이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 유혹이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하와는 무언가 그럴듯하며 보암직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상에 끌렸다. 감각을 사용함으로 하와는 대상을 봤고, 그것을 원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 같지 않은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읽으면서 수 차례 만나게 되는 습관적인 패턴이다. 사무엘하 11 장에서 다윗은 밋세바 안에 선하며 보암직한 무언가를 보았다. 다윗이 그에게 끌렸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취했다. 사사기 16 장에서 삼손은 드릴라 안에 무언가 선하며 보기에 좋은 것을 보았다. 삼손은 그에게 끌렸다. 그리고 그 끌림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

**\*\* 보고 원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 우리 모두가 빠지는 습관적인 행동 방식이다. TV 보면서 채널을 돌리고, 인터넷 서핑 하면서, 백화점 내를 걸으며 또는 학교 복도를 걷거나 거리를 운전하면서 우리는 눈에 선하며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것에 끌리게 된다. 척이치즈(미국 아동 피자점 겸 놀이기관—역자 주)에서 비치되어 있는 새 동물인형을 쳐다보는 다섯 살짜리 꼬마 남자아이의 경우어나 백화점에서 옷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치마를 쳐다보는 열여덟 살 소녀의 경우나 신문 판매대 옆을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쳐다보는 마흔여덟 살 남성의 경우나 무언가 보암직한 것을 보고는 “정말 가지고 싶다”고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다. 소비주의와 광고로 팽배한 우리 시대에 특히나 두드러진 현상으로, 오늘날 문화는 우리에게 감각 자극적인 내용물을 퍼붓는다. “정말 가지고 싶다”라고 말할 기회가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게 된다.

• **요한일서 2 장 16 절**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 .....이것은 바로 세상의 것:** 우리가 무언가 선하며 보암직한 것을 보고 또 그것에 끌릴 때 요한일서 2 장 16 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좇아 온 것, 즉 하나님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각적인 유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 소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 아니다. 이 제품들을 만들었다는 확인서 하단에 서명란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인 것이다. 눈에 좋은 것을 보며 “정말 가지고 싶다”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정욕이다.

**\*\* 그런데 왜 그럴까?** 유혹이라는 것이 왜 세상으로부터 난 것인가? 어떻게 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세상으로부터 난 것으로 분류하게 되는가?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와가 선악과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살피면 하와는 자기 자신이 하는 말 이상의 위대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상의 위대함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충분하거나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것이 필요했었다. 우리 있는 그대로가 불충분하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이 과연 유혹에 넘어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 **\*\* 영화 속 사례**

- **루시:** 주문의 책을 훑어보며 잠재적인 미를 직접 체험하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언니에 대한 질투로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탐낸다. 적어도 언니 수잔을 능가하는 아름다움 말이다.
- **에드먼드:** 그럴듯하며 보암직한 것 즉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못을 봄으로 자극 받은 에드먼드는 그 연못에 끌렸다. 그리고 이런 것에 이끌려 권력과 재물을 탐내게 되었다.
- 루시와 에드먼드가 하와와 비슷하게 생각한 듯하다. 그들은 자신이 원했던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든 부와 권력이든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드디어 완성시킬 것이라는 거짓말에 넘어갔다. 루시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더 아름답다면..... 에드먼드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게 권력과 재물이 조금만 더 있다면.....
- 우리가 유혹을 볼 때 무엇이 그것에 끌리게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나는 과연 이것을 왜 원할까?”

#### **\*\* 유혹의 두 가지 전제조건**

### **2. 극복 가능한 경험으로써의 유혹**

- **고린도전서 10 장 12-13 절 말씀**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 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유혹이란 보편적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이란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가르친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신다. 환언하면 우리는 유혹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 주신다.**

**\*\*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두 구절에서의 대상인 "너희"는 실제로 복수 형태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유혹에 대처하는 데에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본문을 읽으며 동사 앞에 "너희가"를 넣고 읽어보라. 우리가 유혹을 다루며 그것에 대처하는 주된 방식에 변화가 온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혹이 우리가 혼자 경험하며 대처하는 것이다. 실제로 악마의 가장 좋아하는 번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6 이라 생각했으나.....그것에 아니라 1 이다. 우리가 언제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인가? 아니면 꼭 닫은 문 뒤에 우리 혼자 있을 때인가? 의심의 여지 없이 후자의 경우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공동체 단위로 대처하고 계시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껍데기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로 혼자가 아닌 함께 유혹과 맞서 싸우도록 목적하셨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단, 각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유혹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갈라디아서 6 장 1 절 말씀에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야기:** 커다란 스캔들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서야 죄에 대처하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타이거 우즈, 또는 가톨릭 신부, 또는 조금 전 언급한 기사에서 강제 성 행위 때문에 고소된 대형교회 담임목사 같은 스캔들 말이다. 또는 이보다도 못한 것으로, 바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지 못한 친구가 신문 첫 면을 장식하는 일을 저지르게 하고픈 마음은 더욱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되는가? 깊은 관계의 지체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는가? 우리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 만한 관계에 있는 지체들 말이다. 우리의 본 모습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공동체 단위로 각자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계획하신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반석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믿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0 장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 영화 속 사례**

이야기 내내 이 주제가 되풀이된다. 바로, 각 유혹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아슬란의 오심으로 가능해진다. 루시가 마법의 책 페이지를 넘기자 마치 없었던 곳에 나타나듯 아슬란의 이미지가 갑자기 보인다. **에드먼드**와 **캐스피언**이 권력을 놓고 말다툼하자 아슬란이 나타나는데 본서에 의하면 "마치 실제로 태양이 지나가며 그 빛을 남기듯 찬란한

광채를 발하며 그 어느 사자보다도 거대한 사자가 느린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물들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아슬란의 임재하심을 통해 피할 길이 제공된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다.

유혹의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면에서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있어서 신실하시며, 다른 한 가지는 피할 길을 내심에 있어서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 물론 우리 한계에 대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확연히 다를 수 있지만 말이다. 특히 유혹에 빠질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케 하며 낮추는 길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에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다. 우리는 단단한 땅 위에 두 발로 서게 될 것이다. 유혹의 무게로 무너져 무릎 꿇게 되지 않을 것이다.

### 3.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경험으로써의 유혹

- **히브리서 4 장 14-16 절 말씀**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예수님께서 유혹의 과정을 깨뜨리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유혹 위에 승리까지 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으로 인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유혹을 받으심으로 인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글 처음 부분에서 제시한 목록으로 되돌아가서 빈칸을 채워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_\_\_\_\_의 유혹을 받으셨다. 모든 유혹을 생각해보라. 예수님께서 바로 같은 유혹을 경험하셨다. 따라서 창세기 3 장 이후로 보이는 유혹의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깨뜨리셨음을 볼 수 있다. **‘바라봄’, ‘원함’, 이에 따른 ‘행동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혹 받으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이 **‘바라봄’** 단계 후 바로 중단된다는 것이다. 누가 복음 4 장 5 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예수에게 “보이며” 유혹했다.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깨뜨리셨다.

**\*\* 우리 역시 과정을 깨는 권세를 얻게 된다:** 과정을 깨뜨리심으로 그 과정을 깨뜨릴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는 그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 깨뜨림에 동참하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은 우리로 유혹을 이길 자신감을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14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유혹 위에 승리할 수 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제사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주셨다. 모든 속죄물을 단번에 드린 것이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의 제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유혹에도 불구하고 온전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구세주가 유혹을 이겼으며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의 제사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 『새벽 출정 호 이야기』 중 아슬란이 나타나는 사례**

• **유스터스:** 유스터스라는 인물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욕심과 보물을 가지려는 유혹에 사로잡힌 후 그는 용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비늘을 긁어내며 벗기려 안간힘을 썼으며, 자기 삶에 얼룩진 죄를 긁어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그리고 껍질을 겹으로 잡아 벗으려 애썼지만 결국 비늘을 완전히 벗겨내 줄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사자밖에 없었다. 이야기 속 말을 빌리자면 "네 옷은 내가 벗겨야 한다." 아슬란이 용의 비늘 껍질을 벗겨내자 즉 욕심을 벗겨내자 유스터스는 그 시점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이지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보긴 처음이었어. ....나는 마치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워져 있었어." 이야기 후반부에서 유스터스는 보다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바다뱀과 맞서 싸우며 그는 용기를 발휘한다. 또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도와 행동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가 그러한 품격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오직 아슬란이 그에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나를 꺼내 옷을 입혀 주었다."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슬란을 통해서였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 결론

• 영화 <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보며 유스터스, 에드먼드, 그리고 루시가 당하는 유혹을 보며 우리의 추악함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이 영화로 우리 삶 속에 산재한 유혹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그에 따라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추악함을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인생 속 유혹에 접근하며 유혹이라는 것을 이루는 감각적인 경험과 과정(즉, **'바라봄, 원함, 이에 따른 행동함'**)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인생 안에 죄의 힘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힘의 헛됨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분이 유혹의 과정을 깨뜨리셨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극복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을 통해 유혹의 힘과 방향을 이겨내길 기도한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도한다.

-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영화와 그분의 말씀으로 당신께 이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 속의 유혹들을 극복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고려해보라.
-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유혹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단위로 다루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가? 그들도 당신의 회복을 돕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본을 두고 있는 도움인가?
- 유스터스, 에드먼드 그리고 루시가 아슬란을 통해 유혹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역시 유혹을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합시다. 아멘.